

태극 남자 군단, “미·일 상금왕은 우리 것”

LPGA 유소연·박성현 경쟁·JLPGA는 김하늘 독주... 3번째 동시석권 도전

올해도 변함없이 세계최강의 위용을 자랑하는 한국여자골프가 역대 3번째로 미국과 일본 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상금왕 동시 석권에 도전한다.

한국여자골프는 15일 현재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무려 21승을 합작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LPGA 투어가 휴식기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 선수들은 22개 대회 중 12개 대회 정상에 올랐다.

한 시즌 최다승을 기록한 2015년 15승에 불과 3승차로 접근했다.

태극남자 군단의 활약은 JLPGA 투어에서도 빛난다.

올해 20개 대회 중 절반 가까운 9개 대회를 휩쓸었다.

2년 연속 17승을 거둔 저력은 올해도 여전하다.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각종 순위에서도 두드러진다.

그 중 상금 부문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1위를 질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현재 LPGA 투어 상금순위 1위는 올 시즌 메이저 대회 우승과 함께 2승을 거두고 있는 유소연(26·메디힐)이다.

유소연은 현재 173만3086달러의 상금을 획득해 2위 박성현(24·KEB하나은행·154만115달러)을 제치고 상금부문 1위다.

한국 선수는 2013년 박인비가 상금왕에 오른 이후 최근 3년 동안 엄청난 승수를 쌓았음에도 상금왕 타이틀을 지켜내지 못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유소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상금 부문 1위에 올라 있는 김하늘

유소연과 박성현은 물론 3승을 따낸 김인경(29·한화·108만5883달러)도 4위를 달리고 있어 4년 만에 LPGA 투어 상금왕 탈환을 노리고 있다.

JLPGA 투어에서는 2015년과 2016년 상금왕 2연패를 한 이보미(29·혼마골프)가 주춤한 사이 김하늘(29·하이진로이)이 생애 첫 상금왕 등극에 나섰다.

김하늘은 지난 주말 NEC 가루이자와 72 골프 토너먼트에서 아쉽게 연장 끝에 준우승했지만 18개 대회에서 3승을 거두며 상금 1억엔(1억131만6000엔)을 넘어섰다.

2위 스즈키 아이(일본)에 약 2000만엔 앞서 있다.

한국 선수들이 미국과 일본 여자골프투어에서 동시에 상금왕에 오른 것은 2010년이 처음이다.

당시 LPGA 투어에서는 최나연(29·SK텔레콤)이 시즌 2승을 비롯해 시즌 '톱5'에 무려 12차례나 들며 총상금 187만1166달러로 상금왕을 차지했다.

JLPGA 투어에서는 안선주(30·요넥스코리아)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상금왕에 등극했다.

당시 일본 무대에 첫 발을 내딛었던 안선주는 4승과 함께 상금 1억4507만엔을 수확하며 상금왕과 함께 신인상까지 거머쥐는 돌풍을 일으켰다.

2012년에는 '골프여제' 박인비(29·KB금융그룹)와 전미정(35·진로재팬)이 두 번째로 미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상금왕에 올랐다.

2013년 LPGA 투어에서 박인비가 상금왕 2연패를 달성했지만 일본에서는 안선주가 4위에 그치며 동반 석권에 실패했다.

2014~2016년에는 일본에서 3년 연속 한국 선수가 상금왕에 올랐지만 미국에서는 등극에 실패하며 엇박자를 냈다.

올 시즌 일정의 3분의 1 정도를 남겨둔 상황에서 아직 상금왕의 향방을 속단하기 이르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태극남자 군단의 역대 3번째 미국과 일본 여자골프 투어 상금왕 등극을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김민근기자



태권도원 배 전국 태권도대회 개막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전북도태권도협회와 주관하며 전북도와 무주군 무주군태권도협회가 후원하는 제3회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대회가 지난 14일 막을 올렸다.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김일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과 이태현 무주군 부군수, 유승열 의장, 태권도진흥재단 김성태 이사장, 전북태권도협회 최동열 회장을 비롯한 선수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이태현 무주 부군수는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열기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꿈과 희망이 묻어났던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의 합찬 에너지를 이어받아 열기가 남다른 것 같다"며 "태권도원 배 전국 태권도대회를 통해 선수여러분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권도 유망주들이 태권도원에서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3회 태권도원 배 전국 태권도대회는 18일까지 5일간 태권도원 T1경기장(겨루기 8.14.~18.)과 무주국민체육센터(품새 8.14.~15.)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1,500여명의 겨루기 선수들은 전자호크와 전자헤드기어 착용 후 토너먼트 경기 방식으로 체급별 실력을 겨루며, 품새는 태권스포트를 경기 운영 프로그램을 적용해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아시안컵 허재호, 한국 농구 자존심 지켰다

일본과 8강 결정전 81-68로 '광복절 한일전 승리'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이 광복절 새벽 8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일본을 꺾고 한국 농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

허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5일(한국 시간) 레비논에서 열린 2017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일본과 8강 결정전에서 81-68로 승리했다.

대표팀은 이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 아시아컵 8강 진출을 놓고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만났다.

농구 종목에서 한국은 그 동안 일본을 한 수 아래 전력으로 평가해왔다. 세계랭킹에서도 한국(30위)은 일본(48위)보다 18계단이나 낮았다.

그러나 최근 각종 남녀 대표팀 간 맞대결 전적을 보면 이 같은 평가는 완전히 완전히 뒤바뀌었다.

200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스포츠에 과감한 투자를 해 온 일본은 농구에서도 상당한 성장세를 이뤘다.

미래 한국 농구를 이끌어갈 남녀 청소년 대표팀은 물론 좀처럼 일본에 패한 적 없는 대학 선발전까지 최근 일본과 대결에서 연전연패를 당했다.

여자 성인대표팀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컵에서 56-70으로 졌다. 당시 일본 여자대표팀은 아시아컵 3연패를 이루는 등 이제는 따라 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남자 성인대표팀 대결에서 9승 1패의 압도적인 전적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일본 농구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경기였다.

더욱이 광복절 한일전에 대한 부담감과

패하면 8강 진출 실패라는 압박감도 선수들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 뻔했다.

경기 초반 일본 귀화 선수 아이라 브라운(193cm)에게 잇따라 3점슛을 허용하며 주도권을 내줬지만 곧바로 전열을 재정비하며 대등하게 경기를 가져갔다.

일본은 예선전 3경기 3점슛 성공률 44.5%로 16개 팀 중 1위였다.

허재 감독은 이런 일본의 강점인 외곽슛을 막기 위해 지역 방어와 개인 방어를 시로 바꿔가며 수비에 집중했다.

덕분에 전반에 일본의 3점슛 성공률(6개 시도, 5개 성공)이 워낙 높았지만 시도 자체를 줄일 수 있었다.

전반 막판과 3쿼터 초반 경기 분위기를 자칭 일본에 넘겨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팀의 기동 오세근(KCC)과 김선형(SK)의 집중력도 좋았다.

대표팀 포스트진이 가진 높이의 우위가 페인트존 득점으로 자주 이어지진 못했지

만 수비에서만은 일본 선수들의 골밑 접근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이었다.

한국의 수비는 승부차였던 4쿼터 시작과 함께 3분여 동안 일본을 1점으로 막았다. 트랩 디펜스와 빠른 매치업 전환으로 일본의 실책을 이끌어냈다.

허재 감독의 선수 기용도 승리의 원동력. 1쿼터 전준범(모비스)은 벤치에서 등장해 추격하는 3점슛을 잇따라 쐈었다.

4쿼터에는 허웅(상무)이 점수차를 벌리는 3점슛 두 방 등 11점을 집중시키며 믿음에 보답했다.

4쿼터에 승부가 갈리기는 했지만 내용면에서는 13점 차 이상의 경기였다. 경기 도중 몇 차례 심판의 애매한 판정에도 선수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반면 일본은 예선 3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실책이 11개에 불과했지만 이날은 18개를 쏟아냈다. 주무기인 3점슛도 18개를 시도해 7개를 넣으며 예선 때만 못했다.

한국은 오는 17일 예선 B조 1위 필리핀과 4강 진출을 놓고 다툰다.

/김민근기자

심판 밀친 호날두, 5경기 출전 정지 징계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엘 클라시코' 데비도중 판정 문제로 심판을 밀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마드리드)가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페인축구연맹은 15일(한국시간) 호날두에 대해 5경기 출장 정지 처분과 함께 3805유로(51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레알 마드리드에도 1750유로(236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호날두는 지난 1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캄 노우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 2017~2018시즌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1차전에서 교체 출전했다.

이 경기서 호날두는 팀이 0-1로 뒤진 후반 24분 결승골을 넣고 상의 탈의 세례마니로 첫 번째 경고를 받았고, 후반 35분에는 페널티박스 안에서 헐리웃 액션을 했다. 이로써 한 장의 경고를 받았다. 주심은 지체 없이 레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본 호날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주심의 등을 살짝 밀친 후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스페인축구연맹은 주심을 밀친 것이 '심판을 당기거나 밀거나 흔드는 행위' 혹은 '상식에 어긋나는 태도'를 다룬 징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호날두는 최장 후속조치로 1경기 출장정지, 퇴장 후 심판을 밀친 것에 대해 4경기 출장정지를 포함해 총 5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